

휴수저·헬조선 삶... 그래도 인생역전을 꿈꾼다

광주형 청년창업 모델을 찾아서

<1>좌절하는 청년들과 청년창업 실태

‘N포 세대’, ‘휴수저’, ‘헬조선’ 등 대한민국 청년들의 대표하는 수식어는 그들의 고달픈 삶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불황과 구직난 등 청년들에게 취업 그 자체가 전쟁과 다름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들의 고용문제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청년들에게 창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쉬운 게 아니다. 무분별한 창업 장려와 창업자금 대출 지원은 자칫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전쟁시대는 이제 청년창업시대로 흐름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광주의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고 ‘청춘(靑春)’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춘 ‘광주형 청년창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딜지라도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을 수 있는 환경을, 이들이 실패하지 않을 창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내외 성공적인 창업지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다닌던 직장이 폐업하거나 임시로 맡던 일이 끝나면서 자기 뜻과 상관없이 이직하는 청년이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취업의 문을 통과했음에도, 청년들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는 얘기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임시적·계절적인 일이 끝나거나 계약 기간이 완료된 경우와, 직장 휴·폐업·파산 등으로 첫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15~29세)은 3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비자발적 청년 이직자는 2012년 27만8000명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33만4000명으로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데 이어 2년 연속 최고치를 새로 썼다.

비자발적 청년 이직자 비율도 올해 14.5%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 비율은 2006년 8.4%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점차 상승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 10.9%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에 진입한 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일거리가 없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 등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는데, 비자발적 이직자 발생은 주로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업활동이 부진해지면 정리해고를 하거나 계약직으로만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이 이직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워낙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직을 찾아 떠돌거나 별다른 경험도 없이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별다른 아이디어 없이 요식업이나 공방 등 일반 창업에 도전한 청년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사업체를 가진 20대 대표자 수는 지난 2013년 6만7365명에서 2014년 말 8만2988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대 창업자들의 절반이 넘는 5만3010명(64%)은 숙박이나 요식업, 소매점 등 생계형 창업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생존율이 절망적이라는 것에 있다. 국내 청년 창업자의 5년간 생존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후 5년 동안 10명 중 8~9명이 사업에 실패해 폐업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중에는 별다른 자본금 없이 부모님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점포를 열었다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는 경우도 허다하다. 막대한 현실을 탈피해 먹고 살아보겠다고, ‘성공’이라는 장밋빛 인생을 꿈꾸며 도

20대 창업자 절반 숙박·요식업 ‘생계형’

별다른 자금없이 개업했다 빚더미 앉아

구직활동 포기한 백수청년 해마다 증가

미취업 상태 청년 147만2000여명 달해

청년창업시대 지역 특성맞는 정책 필요

전했으나 정작 몇 년 만에 수익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된다는 뜻이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자포자기’하고 있다. 아예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채 여행과 같은 여가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백수 청년층들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졸업·종퇴 후 취업하지 못했거나, 취업했다가 일을 그만둔 미취업 상태인 청년층(15~29세)은 147만2000명에 달했다.

이 중 52만1000명(35.4%)은 취업 관련 시험준비로 시간을 보냈다. 눈에 띄는 것은 여가 시간이었다. 취업과 관련한 활동이 아니라 여행이나 독서 등 유희와 관련한 활동을 한 청년층은 지난 5월 7만3000명(5%)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무려 28.2% 증가했다.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청년층 4만7000명(3.2%)보다 여가 시간을 보낸 청년층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여가 시간을 보낸 청년층은 남성이 더 크게 늘었다. 전년보다 105.2% 늘어난 2만8000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구직활동이나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낸 청년층은 25만6000명(17.4%)이었다. 여가 시간을 보낸 청년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을 합하면 32만9000명으로, 전체 미취업 청년층 가운데 무려 22.4%에 달한다.

이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19만명(12.9%)에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했던 이들보다 여가를 즐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더 이상 청년들이 좌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청년창업 스타트

UP



상무지구 상가 매매

시청 1분. 금융가대로변

현대아파트 후문 앞

8층 중 4층 (45평)

내부개끗 / 주차 가능

보 2천 월 100만

→ 매가 1억9천 (웅7천)

직매 010-6670-9800

수기동 상가 매매

천변로 전망최고

20층 중 6층

45평 (고급시설)
리모델링 완비/ 주차완비

보 1천 월 60만

매가 9천8백 (웅5천)

직매 010-6670-9800

경매 (주)대신경매

1) 서구 농성동 (상가건물)
토지 42평 건물 51평
농성역/돌고개역 3분 (코너)
자동차정비소 운영중
감정가 2억 6천 → 최저가 2억 6천

2) 금남로 16층 (상가건물)
토지 488평 건 6,000평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40억

3) 남구 봉선동 (2층 상가건물)
토지 690평 건물 430평
감정가 46억 → 최저가 46억

4) 광산구 월곡동 (상가주택)
토지 51평 건물 134평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6천

5) 동구 충장로 (4층 상가건물)
토지 215평 건물 157평
감정가 11억 → 최저가 8억8천

6)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지 2,546평 건물 1,738평
감정가 90억 → 최저가 50억

010-7384-7800

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전문직업 컨설팅반
(프리 1년반)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

010-6670-9800